문화人

"대중에게 받은 큰 사랑 국악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UN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 위촉된 국악소녀 송소희

송소희 양은 우리의 국악과 전통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인 UN 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가 되어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름만 홍보대사가 아닌 좀 더 공부해서 이 행사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소녀 송소희 양이 2월 5일 UN 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밝힌 소감이다. 이제 막 18세의 나이에 접어든 소녀가 밝히는 소감치고는 너무나 당차고 똑부러진다. 이날 송 양은 홍보대사 첫활동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복주머니를 시민에게 직접 배포했다. 앞으로 홍보모델은 물론 로고송 제작, 문화공연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송 양은 2004년 전국 시조 경창대회 대상과 2008년 KBS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 대상 수상, 2009년 SBS스타킹 등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수덕사 홍보대사,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등을 맡으며 불교계와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해 KT광고에서 국악 소녀로 출연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송 양은 자신은 스타나 연예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악인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방송 출연이 많은 건 아니에요. 예능은 '1박 2일' 과 '남자의 자격' 정도만 출연을 했고 대부분이 공연 프로그램에만 나갔죠. 저는 국악인이니까요. 학교와 병행해야 하니 월 3~4회 정도만 방송을 출연 해요."

자신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국악과 우리의 전통을 알리는 데에 있다고 말하는 송소희 양. 그러고 보니 그녀의 공연 경력은 매우 화려하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충남국악관현악단, 청주시국악관현악단, 충주시국악관현악단, 용인시국악관현악단, 대전시국악관현악단, 숙명가야금 연주단 등 다수의 국악관현악단과 협연 하며 국악인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해왔던 것이다.

"수덕사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악 알리는 일에 '최선'
한국의 전통 홍보에도 매진

"과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한국사에요. 부모님께서 국악을 하려면 한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전통을 기본으로 하는 음악이 국악이니까요. 앞으로 저는 이런 국악을 대중들이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너무 전통에 치우치지도 않고 국악의 본질을 깨지 않는 선에서 대중들이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신실한 불자인 아버지 덕분에 수덕사에서의 추억이 많다고 송 양은 말한다. "아빠 따라서 수덕사에 자주 갔어요. 새해마다 세배 드리러 가곤 하죠. 전 주지 옹산 스님은 출판 기념회 때 찾아가 노래를 불러 드릴 만큼 각별한 사이지요. 수덕사 산사음악회 때 공연도 했는데 스님들이 노래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스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절에 가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송 양은 올해 안으로 국악 앨범을 낼 계획이다. "아직은 앨범을 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성장 과정의 목소리를 담은 앨범을 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결정 했어요. 기본을 탄탄히 해서 깊이 있고 세련된 국악을 대중들에게 들려 드리고 싶어요."

이번 앨범에서는 창작곡 두 곡을 포함해 기존 민요를 편곡한 곡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대중들과 음악으로 만나는 시간도 활발히 펼치고자 한다. 단독 콘서트는 물론 러시아, 미국, 인도 등의 해외 공연도 펼칠 예정이라고.

한때 남과 다른 학교생활 때문에 진로에 대해 고민도 많았던 송소희. 하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래서 송소희 양은 국악과 전통을 알리는 국악인으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음악가로 그간 받은 사랑을 세상에 회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국악과 우리문화 전통을 알리는 것이 본분이라는 송소희 양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다.

UN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웃고있는 송소희 양.

운수의 정신 송학의 자태로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⑦ 권문해와 용문사

천년 세월의 기이한 흔적

예천 용문사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윤장대(보물 제684호)가 있는 절로 유명하다. 1173년(고려 명종3년) 처음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대장전(보물 제145호) 안에는 윤장대와 아미타후불목각탱(보물 제989호)과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989-1호)이 모셔져 있다.

서기 870년(신라 경문왕 10년) 두운(杜雲) 선사에 의해 창건된 용문사의 사명(寺名)과 관련,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를 정벌하러 내려가다 이 사찰을 찾았으나 운무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치 못했는데, 어디선가 청룡 두 마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하였다 하여 용문사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두운암반월색한(杜雲岩畔月色寒)
문설정기과차산(聞說旌旗過此山)
천재삼기유승적(千載三奇留勝跡)
연거래주구망환(憐渠來住久忘還)

두운암 가에 달빛은 시린데
듣자니 왕의 행렬이 이 산을 지났다네.
천년의 삼기는 뛰어난 자취 남겼는데
가련타 그이는 와서 머물며 오래도록 돌아감을 잊었네.

-권문해 〈초간일기〉 1581년 1월 4일.

예로부터 예천 지역을 대표하는 큰절이었던 용문사에서 10여리 떨어진 죽림리에는 초간정(草澗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거대한 암반을 휘돌아 가는 물길을 굽어보는 이 정자를 지은 사람은 권문해(權文海 1534~1591)다. 그가 죽기 전 10여 년 동안 기록한 일기가 〈초간일기〉인데 보물 제879호다. 필사로 기록된 이 일기는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사회를 연구하는데 귀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권문해가 51세 되던 해 1월 4일자 일기에 적혀 있는 위의 시 앞에는 '용문사의 승려 신징(信澄)이 와서 시를 구하기에 판서 정약포의 시에 차운하여 써 주었다' 라고 적혀 있다. 권문해는 어려서 용문사에서 먹고 자며 글을 읽으며 심신을 수양했다. 그래서 용문사 승려들과 교분이 두터웠고 그의 사상도 매우 개방적으로 형성되었다. 개방적인 그의 사상은 가정적인 자상함에서 민족적인 웅혼함이 두루 융화된 '큰 그릇' 이었다. 그가 남긴 저술과 시편들이 그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권문해는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유성룡 김성일 등과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친교가 깊었다. 무엇보다 독서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권문해는 송나라의 음시부(陰時夫)가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인 〈운부군옥(韻府群玉)〉을 본 따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편찬했다. 단군시절부터 선조 때까지의 역사 인물 지리 문학 식물 동물 등을 총망라하여 운별(韻別)로 분류한 〈대동운부군욕〉은 20권 20책의 방대한 저술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다.

용문사는 예천 지역을 대표하는 절이다.

17세에 향시에서 장원을 하고 27세에 별시(別試)에 급제하며 벼슬에 나간 권문해는 58세(1591년)로 생을 마치기까지 30여년 벼슬살이를 했다. 내직(內職)으로는 성균관과 춘추관에서 여러 보직을 수행했고 외직으로는 안동부사 공주목사 대구부사 등을 역임했다.

산사에서 과거 준비하던 추억

권문해의 문집 등에는 모두 293수의 시가 전한다. 벼슬살이로 고향을 떠나 있을 때에는 고향을 그리는 사향시(思鄕詩)를 짓고, 벗과의 풍류와 이별 등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낸 시, 가족과 친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도 많이 지었다. 민족의 자주성을 일깨우고자 편찬한 〈대동운부군옥〉과 실생활에서의 감흥과 애환, 목민관으로서의 고뇌 등을 시편에 녹여 낸 권문해의 사상과 문학은 조선 후기 실학의 태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권문해는 소백산 줄기의 웅혼한 기상이 서린 용문사에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다 넓게 인식하는 안목을 길렀다. 불교는 물론 도가와 민간의 여러 신앙을 배척하지 않았고, 신분을 초월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유한 그의 행적은 한 시대의 지식인이 갖춰야할 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문산하쇄선비(龍門山下鎖禪扉)
운수정신송학자(雲水精神松鶴姿)
급억석년천탑일(役憶昔年穿榻日)
영거야야점등시(令渠夜夜點燈時)

용문산 아래 선방은 굳게 닫혔는데
운수의 정신은 송학의 자태로다.
문득 옛날 공부하던 날을 생각하니
그대에게 밤마다 등불을 밝히게 하였지.

-권문해 '차약산운제징상인시축' 〈초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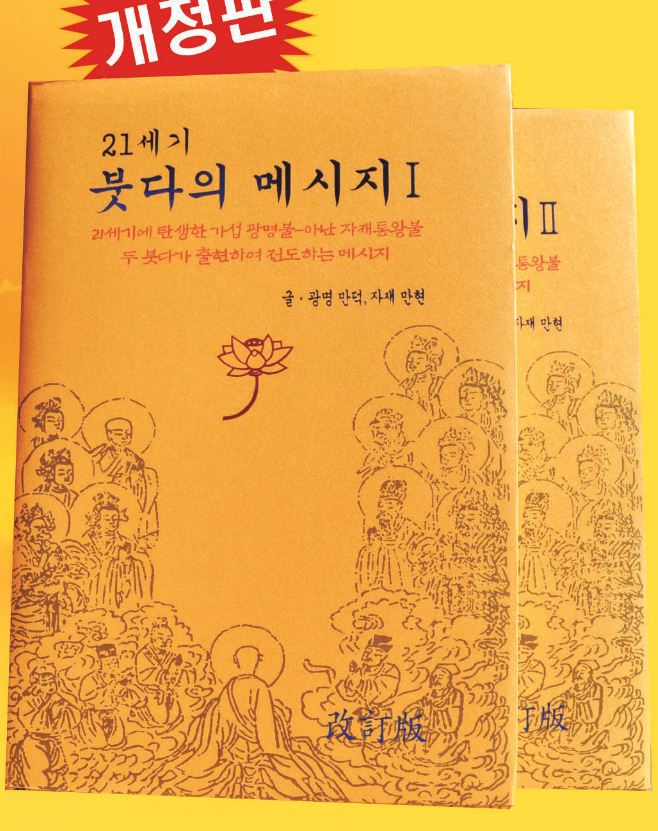
그가 용문사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회고하며 신징 스님에게 써 준 시다. 〈초간집〉에 실린 권문해의 연보 24세 조(條)에는 '밤부터 새벽까지 등잔기름이 여러 번 끊어짐에 승려 신징이 도와주었다' 고 적혀 있다.

27세에 별시에 급제하기 전 용문사에서 과거준비를 했는데 등잔의 기름을 채워 넣으며 밤 새워 공부했고, 그의 곁에서 등잔 기름을 채워주며 공부를 도왔던 이가 신징이라는 스님이었던 것이다. 앞에 보인 〈초간일기〉에 수록된 시도 신징 스님의 요청에 의해 써준 것이고 보면, 권문해는 일생동안 신징 스님과 깊이 교유했음을 알 수 있다.

시를 보면, 권문해는 신징 스님을 송학과 같은 고고한 운수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 시험을 준비 하느라 밤샘 공부를 하는 자신을 위해 등잔 기름을 갈아 주던 스님에 대한 각별한 정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다. 운수는 참선 수행을 하는 선승의 이칭(異稱)이니 신징 스님은 선승이었던가 보다.

무엇보다 결구에서 '그대에게 밤마다 등불을 밝히게 하였지' 라며 직설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미가 아름답다. 별다른 수식 없이 그저 과거의 어떤 사실을 들춰내는 것만으로 그 시절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순수하게 피어오르는 것이다.

권문해에게 용문사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그가 만년에 쓴 〈초간일기〉에도 자주 용문사를 찾은 기록이 보인다.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견성은 머나먼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 이 책이 여러분을 정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 춘천본사 - T.033-243-1795, 243-1787 • 불서총판 운주사 -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